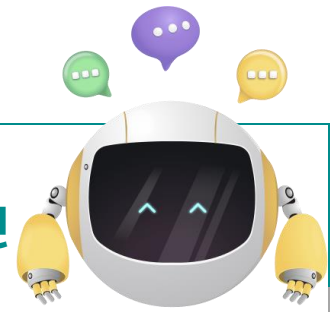




오라클, OCI 성장 가속 & RPO 매출 전환 속도 개선

Tech&Stock Weekly | 2026.09.11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오라클(ORCL.US): 1QFY27년 실적, OCI 성장 가속과 RPO 매출 전환 속도 개선 긍정적

- 주요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고, OCI 성장 가속, RPO 증가와 매출 전환 속도 개선, FY27년 Capex 유지,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
- FY27년 매출 가이드를 기존 900억 달러에서 '최소 900억 달러'로 바꿨으나 사실상 유지. 가이드선 상향 부재가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과거에 보인 공격적으로 가이드선을 높이고 미스하는 패턴에서 변화하기 위한 시도라면 오히려 긍정적. 보수적으로 가이드선을 제시하고 상회폭을 확대하여 가이드선 산정과 실행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 FY27년 향후 남은 분기 동안 OCI 성장 가속화 지속과 RPO의 매출 전환이 향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Beat & Raise 기대
- 1분기에 AI capa 850MW 공급, 전년도 연간 공급량의 73% 수준. 뉴멕시코, 위스콘신 데이터센터 지연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 있으나 공급 Capa가 일부 초대형 프로젝트 하나에 의존하지 않으며 두 프로젝트의 일정 변동이 FY27년 실적과 Capa에 영향 없음을 확인
- 1분기 매출액 193.5억 달러(+30% yoy), 조정 EPS 1.92 달러(+30%) 각각 시장 컨센 1%, 10% 상회
- 전체 클라우드 매출 116억 달러, +62%(CC+61%), 컨센(115억) 소폭 상회. OCI 74억, +121%(CC 120%), SaaS 매출 42억 달러(+10%) 기록. OCI 성장률 FY27년 남은 분기 추가 가속 전망
- 데이터센터 램프업 및 인프라 비중 상승으로 GPM 하락했으나, 비용 절감과 효율화로 조정 OPM은 전년 수준 42% 유지
- RPO 6,640억 달러(+46%)로 전분기 대비 260억 달러 추가. 신규 계약은 선납 혹은 고객 하드웨어 활용(BYOH) 비중 높아 추가 현금 투입 부담 제한적
- 신규 RPO 상당부분 FY28년 매출과 Capex에 반영 예정. 기존 RPO의 매출 전환 본격화되어, 현재 RPO 약 50% 향후 36개월 이내 매출로 전환 전망
- Capex 280억 달러, FCF는 50억 달러 적자. 고객 선납 제외한 순현금 Capex는 180억 달러
- FY27년 Capex 기존 가이드선(900~950억) 유지, 1분기에 200억 달러 ATM 주식발행 완료

오픈AI(비상장):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관련 증명 발표

- 오픈AI가 9월 3일 차세대 AI 모델 GPT-6 Astra 출시. 컴퓨터 조작 평가인 OSWorld 2.0에서 72.6%를 기록하며 GPT-5.6 Sol의 65.7% 상회. 동일 평가의 소요시간 모의실험에서는 작업당 약 75분에서 40분으로 약 47% 단축. 전문 업무 자동화 평가인 AutomationBench에서도 기존 18.1%에서 41.4%로 점수 상승. 코딩 평가인 Terminal-Bench 4.0에서는 57.9%를 기록하며 기존 37.3% 대비 개선. 과학 연구 작업 평가인 Terminal-Bench Science에서 64.6%를 기록하며 기존 22.4% 대비 상승. 고난도 수학 평가인 FrontierMath 최상위 단계에서는 97.6%, 새로운 환경의 규칙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ARC-AGI-3에서는 99.9% 기록. 웹사이트-게임-3차원 모델 제작 과정에서 화면 구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판단하는 능력도 강화. 문서-엑셀-발표자료 작성에서는 기존 양식과 사용자의 문체를 반영하는 기능 개선
-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은 최대 105만 토큰. Codex에서는 장시간 작업 중 기록을 별도로 보존하고 이전 대화와 실행 결과를 다시 검색하는 실험적 기능 도입. 긴 작업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나 실패 원인이 누락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
- 안전성 측면에서는 도구 사용 과정에서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감시하고 작업을 중단하는 기능 도입. 추가 보안 점검으로 정상적인 업무도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한계 존재. 기본 API 가격은 100만 토큰당 입력 10달러, 출력 50달러로 책정. 일부 평가에서는 결과 생성에 필요한 토큰이 줄어 이전 모델보다 작업당 추정 비용이 낮아지는 결과 확인
- 오픈AI는 9월 8일에 물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공식인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에서, 특정 조건이면 물의 속도가 계산상 무한대로 커지는 경우가 있음을 증명했다고 발표. 약 1만 개의 AI 에이전트가 협업한 그룹에서 탐색 시작 약 88시간 만에 해법을 도출. 해당 문제 해결에 출력 토큰 약 1,300억 개를 사용했으며, 과학 연구가 대규모 병렬 추론의 새로운 수요처로 확대될 가능성 시사. 해당 난제를 Astra보다 뛰어난 자체 개발 모델을 사용해 해결. Astra 다음 모델은 Bel로 예상. Astra는 블랙웰 약 10만 장(약 200MW 추정)으로 훈련한 모델. 다음 모델(Bel)은 약 40만 장으로 훈련 되었을 것으로 추정

실적/이벤트

애플(AAPL.US): iPhone Duo 공개

- 애플은 9월 9일 신규 모델 공개 행사를 진행. 특히 신규 폼팩터인 Duo에 주목. iPhone Duo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가격 부담이 있으나 새로운 성능에 주목. 기기 간 연동과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가장 큰 매력으로 평가. 접고 펼칠 때의 자연스러운 화면 전환, 측면 조작 버튼, 자체 앱의 화면 최적화가 iPhone과 iPad의 기능을 결합할 가능성에 주목. Face ID·망원 카메라·Action Button이 빠졌음에도 다른 접이식 스마트폰보다 구매 욕구가 크다는 후기가 많음. 또한 체험자들은 단순 사양보다 통합된 사용 경험에 높은 점수 부여. 주식 시장도 Duo에 긍정적 점수를 주며 9월 10일 3% 내외 상승 마감
- iPhone Duo는 내부 7.6인치와 외부 5.4인치 화면을 갖춘 접이식 iPhone으로, 내부 화면 면적은 iPhone 18 Pro Max보다 50%, iPhone 18 Pro보다 80% 확대. 외부 화면 면적은 iPhone 18 Pro의 약 90%이며, 두 화면의 가로세로 비율을 동일하게 설계해 접고 펼칠 때 화면 전환의 연속성 강화. iOS 27을 접이식 구조에 맞춰 재설계해 주요 조작 버튼을 측면에 배치하고, Split View로 두 앱 또는 같은 앱의 창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지원. 접힌 각도와 기기 방향에 따라 화면 구성이 바뀌며, A20 Pro와 냉각판을 통해 장시간 작업에서 유지되는 성능이 iPhone 17 Pro 대비 최대 35% 높아짐. 자체 통신칩 C2는 C1X 대비 업로드 속도가 최대 50% 빠르고 전력 소모는 15% 적으며, 미국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도 지원. 양쪽 배터리를 하나처럼 관리해 동영상 재생 시간이 내부 화면 최대 31시간, 외부 화면 최대 44시간이며, 두 화면을 동일한 비중으로 사용 시 최대 24시간
- A20 Pro는 2나노미터 공정 기반으로, 중앙처리장치는 고성능 코어 2개와 고효율 코어 4개로 구성. 고성능 코어 속도는 최대 20%, 7코어 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은 최대 40% 개선. 두 번째 Neural Engine을 추가해 총 32코어를 갖추고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2배로 확대했으며, 메모리 대역폭도 50% 확대
- 미국 출시 가격은 iPhone 18 Pro 1,199달러, iPhone 18 Pro Max 1,299달러이며, 9월 12일 사전예약 후 9월 18일 출시 예정. iPhone Duo는 1,999달러부터 시작하며 10월 16일 사전예약, 10월 23일 출시 예정. iPhone 18 Pro에는 2테라바이트 저장용량 선택지가 추가되고, iPhone Duo는 256기가바이트부터 2테라바이트까지 제공

오라클(ORCL.US): 1QFY27년 실적, OCI 성장 가속과 RPO 매출 전환 속도 개선 긍정적

- 주요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고, OCI 성장 가속, RPO 증가와 매출 전환 속도 개선, FY27년 Capex 유지,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
- FY27년 매출 가이드언스를 기존 900억 달러에서 '최소 900억 달러'로 바꿨으나 사실상 유지. 가이드언스 상향 부재가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과거에 보인 공격적으로 가이드언스를 높이고 미스하는 패턴에서 변화하기 위한 시도라면 오히려 긍정적. 보수적으로 가이드언스를 제시하고 상회폭을 확대하여 가이드언스 산정과 실행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 FY27년 향후 남은 분기 동안 OCI 성장 가속화 지속과 RPO의 매출 전환이 향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Beat & Raise 기대
- 1분기에 AI capa 850MW 공급, 전년도 연간 공급량의 73% 수준. 뉴멕시코, 위스콘신 데이터센터 지연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 있으나 공급 Capa가 일부 초대형 프로젝트 하나에 의존하지 않으며 두 프로젝트의 일정 변동이 FY27년 실적과 Capa에 영향 없음을 확인
- 1분기 매출액 193.5억 달러(+30% yoy), 조정 EPS 1.92 달러(+30%) 각각 시장 컨센 1%, 10% 상회
- 전체 클라우드 매출 116억 달러, +62%(CC+61%), 컨센(115억) 소폭 상회. OCI 74억, +121%(CC 120%), SaaS 매출 42억 달러(+10%) 기록. OCI 성장을 FY27년 남은 분기 추가 가속 전망
- 데이터센터 램프업 및 인프라 비중 상승으로 GPM 하락했으나, 비용 절감과 효율화로 조정 OPM은 전년 수준 42% 유지
- RPO 6,640억 달러(+46%)로 전분기 대비 260억 달러 추가. 신규 계약은 선납 혹은 고객 하드웨어 활용(BYOH) 비중 높아 추가 현금 투입 부담 제한적
- 신규 RPO 상당부분 FY28년 매출과 Capex에 반영 예정. 기존 RPO의 매출 전환 본격화되어, 현재 RPO 약 50% 향후 36개월 이내 매출로 전환 전망
- Capex 280억 달러, FCF는 50억 달러 적자. 고객 선납 제외한 순현금 Capex는 180억 달러
- FY27년 Capex 기존 가이드언스(900~950억) 유지, 1분기에 200억 달러 ATM 주식발행 완료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Hugging Face 인수로 AI 개발자 기반 확대

- 엔비디아가 9월 3일 AI 개발 플랫폼 Hugging Face를 약 129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발표. 기존 주주 대상 인수대금 약 119억 달러와 합류 직원의 장기근속을 위한 최대 10억 달러의 주식 보상으로 구성됨. Hugging Face의 직전 투자유치 당시 기업가치는 2023년 기준 45억 달러
- Hugging Face는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공유하고 검색·평가·수정해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플랫폼. 개발자·연구자·창작자 1,800만 명 이상과 기업 20만 곳 이상이 이용 중. 공유된 모델은 300만 개 이상이며, 데이터 모음 50만 개와 응용프로그램 100만 개도 제공 중
- 인수 배경에는 공개형 AI 모델의 확산과 주요 고객사의 자체 반도체 개발이 자리함. 메타·오픈AI·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도 고객 기반 확대를 추진 중. Hugging Face를 통해 모델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는 접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 엔비디아는 이미 Hugging Face에 공개형 AI 모델 500개 이상을 제공한 상태. 인수 이후에는 자사의 연산 기반과 기술 인력을 활용해 플랫폼의 안정성·보안과 모델 평가·추론·배포 기능을 강화할 계획. 젠슨 황은 개발자가 원하는 모델과 클라우드, 연산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

알파벳(GOOG.US): 핀란드에 151억 달러 AI 인프라 투자

- 구글이 2027~2028년 핀란드 AI 인프라에 최소 130억 유로, 약 15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구글의 유럽 단일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 핀란드 북부에는 신규 데이터센터 3곳을 개발할 예정. 추운 기후를 활용한 서버 냉각과 안정적인 전력망이 입지 선정의 주요 배경. 데이터센터 확충과 함께 전력망 개선, 청정에너지, 배터리 사업에도 투자할 계획
- 전력 확보를 위해 핀란드 전력회사 Fortum과 22년 전력구매계약 체결. 계약에는 2030~2049년 로비사 원전 발전량의 50%를 구매하는 조건 포함. 해당 원전은 현재 핀란드 전력의 약 10%를 공급하는 시설. 이번 계약은 구글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체결한 첫 원자력 전력 조달 계약. Fortum은 이를 바탕으로 로비사 원전의 2050년까지 운영 연장과 설비 개선을 추진할 예정. 양사는 핀란드 내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성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
- 에너지 관련 투자에는 94MW 규모의 배터리 시스템과 육상풍력 확대도 포함. 지역사회 지원에는 3,100만 유로 배정.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해 근로자 4,400명 이상의 AI 역량 교육을 지원할 계획

아마존(AMZN.US): 쿨컴과 ASIC 칩 공급 계약

- 9월 8일 아마존과 쿨컴이 대규모 데이터센터용 맞춤형 AI 반도체 협력 발표. 여러 세대의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장기 협력으로, 학습된 AI가 답변이나 예측을 생성하는 추론 작업에 초점. 협력 범위에는 초당 1.6테라비트급 광연결과 후속 세대 기술도 포함
- 광연결 협력은 AI 데이터센터에서 증가하는 데이터 전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쿨컴은 지난해 AlphaWave를 24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관련 기술 기반 확보. 이번 계약을 통해 AI 연산 반도체와 고속 연결 기술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 확대 추진
- 아마존에는 쿨컴 주식 최대 2,500만 주를 주당 161.26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주식매수권 부여. 행사기한은 2036년 9월 3일이며, 전체 수량에 행사가격을 곱한 금액은 약 40억 달러. 주식매수권은 상업적 계약 체결, 구속력 있는 주문, 실제 구매에 따라 단계적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조건. 최초 구매 약정을 바탕으로 375만 주에 대한 권리가 이미 확정됐으며, 전체 조건은 최대 600억 달러의 제품·서비스 구매대금과 연계
- 쿨컴의 아마존 관련 생산은 이미 진행 중이며, 2026년 10~12월 분기부터 매출 발생 예상. 쿨컴이 제시한 데이터센터 사업 전체 매출 목표는 2027회계연도 50억 달러, 2029회계연도 150억 달러

메타(META.US): 개인 비서형 AI Muse 출시

- 메타가 9월 8일 미국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 비서형 AI 에이전트 Muse 출시. 이메일 발송·일정 관리·여행 예약·상품 구매 등 일상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연결할 앱과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와 기능을 활용해 작업 진행. 자체 브라우저로 웹사이트를 탐색하고 양식 작성·예약·구매도 처리 가능. 앱을 닫은 뒤에도 작업을 계속하며, 대화에서 파악한 이용자의 목표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행동을 먼저 제안하는 구조
- 웹과 iOS·Android 앱, WhatsApp에서 이용 가능. 기본 무료이며 Power는 월 20달러, Maximum은 월 100달러
- 보안 측면에서는 이용자별 독립된 가상컴퓨터를 제공하고, 별도 감시 프로그램 Sentinel이 외부 정보 전송과 앱 조작 권한을 통제하는 설계. 비밀번호와 인증정보는 Muse가 직접 볼 수 없는 영역에 보관. 결제는 Stripe의 Link와 연동하며, 구매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제시하고 이용자 승인 요청

- 출시 버전에서는 서비스 운영·지원·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메타의 이용자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상태. 메타의 접근 자체를 암호화 기술로 차단하는 Muse Confidential VM은 연내 도입 계획
- 메타는 대화 내용과 가상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에 직접 공유하지 않는 정책 제시. 다만 Muse가 대신 수행한 웹사이트 방문과 구매 활동은 외부 서비스를 통해 광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 대화·작업 기록은 주요 개인 식별정보를 제거한 뒤 모델 학습에 기본 활용하며, 이용자가 설정에서 학습 대상 제외 가능

테슬라(TSLA.US): Cybercab 출시에도 주가 하락

- 테슬라가 9월 3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Cybercab 출시 행사 진행. 다음 날 주가는 약 6% 하락하며 출시 기대감으로 발생한 전일 상승분 반납. 운전대 없는 전용 로보택시의 승객 운송 개시와 함께 연방 규제당국의 조사 착수가 맞물림
- 행사는 초청 인원만 참석하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생중계 미제공. 차량 투입 규모와 사업 성장·확장 목표에 대한 새로운 구체적 정보도 부족. 실제 상용 운행을 얼마나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발표 이후 실망의 주요 배경
-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는 9월 4일 Cybercab의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자체 인증 조사 착수. 미국에서는 제조사가 차량의 안전기준 충족을 자체 인증하고, 당국이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구조. 이번 조사에서는 테슬라가 운전자 조작장치 없는 차량을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료와 인증 절차를 점검할 예정

앤스로픽(비상장): 퇴사한 연구원, 초지능 개발 경쟁과 안전 통제 역량 간 격차 비판

- 앤스로픽 연구원 제이컵 콕슨이 9월 8일 퇴사 발표. 최근 3년간 오픈AI와 앤스로픽에서 대규모 데이터로 모델의 기초 능력을 학습시키는 사전학습 연구를 수행한 인물. 퇴사 이유는 주요 AI 기업의 개발 경쟁이 안전성 확보보다 앞서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
- 콕슨은 두 회사가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초지능 개발을 서두르면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다고 비판. 오픈AI에 대해서는 기술이 인류 전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평가. 앤스로픽에 대해서는 위험을 이해하면서도 경쟁사가 더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발 경쟁을 지속한다는 지적
- 재직 중인 안전 연구원 에번 후빙거도 우려에 공개적으로 동의. 향후 10년 안에 AI가 인류 멸종을 초래할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10% 초과로 판단한다는 견해 제시. 앤스로픽이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초지능을 인간의 의도에 맞게 통제할 명확한 해결 계획은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

오픈AI(비상장):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관련 증명 발표

- 오픈AI가 9월 3일 차세대 AI 모델 GPT-6 Astra 출시. 컴퓨터 조작 평가인 OSWorld 2.0에서 72.6%를 기록하며 GPT-5.6 Sol의 65.7% 상회. 동일 평가의 소요시간 모의실험에서는 작업당 약 75분에서 40분으로 약 47% 단축. 전문 업무 자동화 평가인 AutomationBench에서도 기존 18.1%에서 41.4%로 점수 상승. 코딩 평가인 Terminal-Bench 4.0에서는 57.9%를 기록하며 기존 37.3% 대비 개선. 과학 연구 작업 평가인 Terminal-Bench Science에서 64.6%를 기록하며 기존 22.4% 대비 상승. 고난도 수학 평가인 FrontierMath 최상위 단계에서는 97.6%, 새로운 환경의 규칙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ARC-AGI-3에서는 99.9% 기록. 웹사이트·게임·3차원 모델 제작 과정에서 화면 구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판단하는 능력도 강화. 문서·엑셀·발표자료 작성에서는 기존 양식과 사용자의 문체를 반영하는 기능 개선
-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은 최대 105만 토큰. Codex에서는 장시간 작업 중 기록을 별도로 보존하고 이전 대화와 실행 결과를 다시 검색하는 실험적 기능 도입. 긴 작업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나 실패 원인이 누락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
- 안전성 측면에서는 도구 사용 과정에서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감시하고 작업을 중단하는 기능 도입. 추가 보안 점검으로 정상적인 업무도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한계 존재
- 기본 API 가격은 100만 토큰당 입력 10달러, 출력 50달러로 책정. 일부 평가에서는 결과 생성에 필요한 토큰이 줄어 이전 모델보다 작업당 추정 비용이 낮아지는 결과 확인
- 오픈AI는 9월 8일에 물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공식인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에서, 특정 조건이면 물의 속도가 계산상 무한대로 커지는 경우가 있음을 증명했다고 발표. 약 1만 개의 AI 에이전트가 협업한 그룹에서 탐색 시작 약 88시간 만에 해법을 도출. 해당 문제 해결에 출력 토큰 약 1,300억 개를 사용했으며, 과학 연구가 대규모 병렬 추론의 새로운 수요처로 확대될 가능성 시사. 해당 난제를 Astra보다 뛰어난 자체 개발 모델을 사용해 해결. Astra 다음 모델은 Bel로 예상. Astra는 블랙웰 약 10만 장(약 200MW 추정)으로 훈련한 모델. 다음 모델(Bel)은 약 40만 장으로 훈련 되었을 것으로 추정

산업재

버티브(VRT.US): Goldman Sachs Communacopia + Technology Conference 2026 리뷰

- Organic 기준 2025-2030 매출 CAGR 가이던스를 기존 +12~14%에서 +20~22% 로 상향조정
- 미국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AI, 컴퓨팅 수요가 확대
- 제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중
- 800V DC 관련 고객 검증을 진행 중이며 일부 제품은 이미 공급 사이클에 들어가
- 800V는 업계가 단일 아키텍처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 다중 아키텍처 전망
- 사이드카 관련은 2027년 하반기부터 가속화되는 흐름을 전망, 완전한 2027년 end-to-end 800V DC 파워트레인은 2027년 말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물량측면에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전망
- 9월 2일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 기업 UIG 인수 발표
- BTM 전력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기 위한 노력, 초기 단계부터 영향력을 강화해 여러 제품 포트폴리오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

블룸에너지(BE.US): S&P 500 편입

- 일루미나, 에버퓨어와 함께 9월 21일 개장 전부터 S&P 편입 예정
- 온사이트 수혜의 논리가 납기에서 주민 수용성으로 확대되며 온사이트 도입의 근거가 확대 중
- 데이터센터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초당적 규제가 이어지고 있어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패시브 자금의 유입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고 있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1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9월 1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